

내부회계관리제도 뉴스레터

Nov 22, 2019

In this Issue

- I. Law & Regulation
- II. Articles
- III. FAQ
- IV. News
- V. Events

Key Contacts

삼성 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TFT 는 회계제도의 변혁에 대한 대응과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TFT 는 K-SOX Newsletter 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뉴스기사, 법제도 동향, 전문가 보고서, Q&A 등을 제공하고, 더불어 교육 및 강연 등 이벤트 소개를 통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추진하시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K-SOX'는 Korea Sarbanes-Oxley Act 의 약자로,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제목을 클릭하여 관련 보도자료, 보고서 등을 다운받거나 뉴스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 Law & Regulation

최근의 법률 제·개정 내용 및 감독당국의 감독방향과 실무지침에 관한 정보

新외부감사법 공포 2년 후 「회계개혁 간담회」 개최 (11.12, 금융위원회)

· 개요

-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을 상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본통지일인 11.12 일, 「회계개혁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는 회계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고 그간 제기된 회계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회계개혁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19.11.12(화) 8:30 ~ 9:30 / 코스닥협회
- 참석: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학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회계법인 [총 11 명]

· 주요 내용

- 감사인선임위원회
 - ▷ (현행) 외부감사법상 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위원회 구성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한 실무부담 호소
 - ▷ (개선) 법취지를 감안하여 3년에 1번 개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구성 관련 사항은 현장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개선방안 적극 검토(단, 감사의 준수사항 확인 업무는 매년 이루어질 필요)
- 주기적 감사인 지정
 - ▷ (현행) 지정 통지가 11월에 이루어져 감사 준비시간이 부족하고, 지정감사인으로 교체시에도 회사가 전기감사인에 대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
 - ▷ (개선) 내년부터 감사인 지정시기를 현재보다 단축(예: 11월→8월)하고, 지정감사인으로 교체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 없다고 안내
- 감사인 교체로 발생하는 전·당기감사인 의견 차이
 - ▷ (현행) 관련 지침(전기오류수정 회계감사 실무지침)이 불명확하여 감사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고, 지침 적용범위가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으로 한정
 - ▷ (개선) 의견 불일치 발생시, 당기감사인이 그 사실과 이유를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 하고, 지침 적용범위를 외감 법인으로 확대

· 개요

- 금융위·금감원은 그 동안의 기업·감사인측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한 회계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설명
- 상장협·코스닥협·금투협(기업측)은 최근 회계현안 및 기타 이슈들에 대한 현장 의견을 개진
 - ▷ 금융위·금감원은 기업측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안착을 위해 기업 및 감사인과 지속·상시 소통하겠다고 밝힘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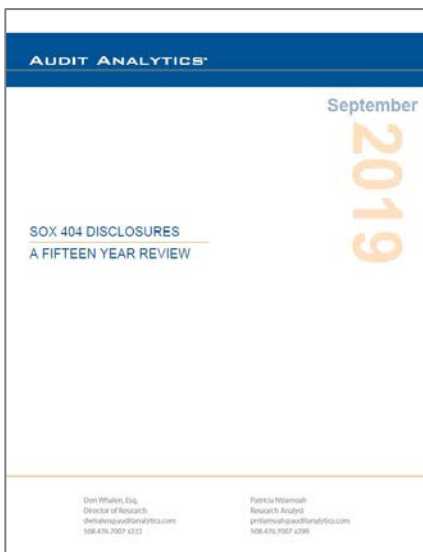
- 상장협·코협·금투협 등 기업측은 최근 회계현안 및 기타 이슈들에 대한 현장 의견을 개진
 - ▷ 특히, 감사인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선임위원회, 표준감사시간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주로 요청하였음
 - ▷ 회계개혁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은 내부회계 운영을 위한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됨
- 금융위·금감원은 기업측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답변이 가능한 내용은 즉답하고 그 외 사항은 관계기관 합동 검토 후 개선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안내함

[Back to top](#)

II. Article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KPMG의 보고서, 국내외의 주요 연구 소개

「SOX 404 Disclosures: A Fifteen Year Review」



Audit Analytics는 美SEC 상장사의 연차보고서(10-K, 20-F)에 기재된 ICFR(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해당하는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 의견과 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조사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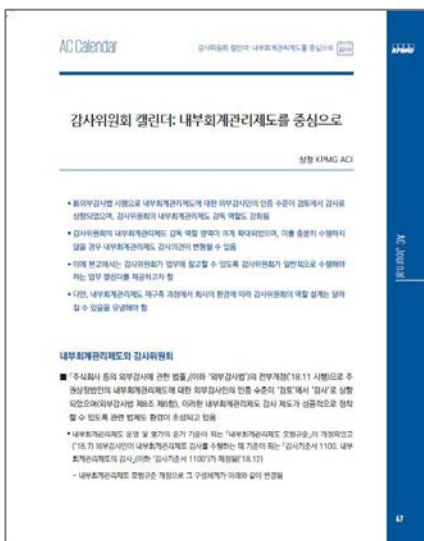
2018년에 ICFR에 대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회사 중 의견이 변형된 회사는 217개사(6.0%)로, 전년 189개사(5.2%)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비적정 사유는 재무제표 수정(138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전문을 유료구매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Audit Analytics

「감사위원회 캘린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제도가 크게 강화되었고, 특히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역할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감사위원회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 캘린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출처] 삼성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Back to top](#)

III. FAQ

新외부감사법 등 강화된 법규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감독당국·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 자주 질의된 이슈를 답변 및 관련 법규와 함께 정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작성 관련 문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9.8.27)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외감규정 시행세칙')은 [별지 제3호 서식]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의 서식을 안내하고 있음

Q1 서식 1-(3) '관리·운영조직의 책임자 현황'에 따르면, 소속기관이 이사회일 경우, 직책이 내부회계관리자인데, 내부회계관리자가 등기임원이 아닐 경우에도 이사회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에 내부회계관리자를 공시해도 되는가?

A1 이사회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보고받는 주체 등 관리·운영조직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책임자 성명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내부회계관리자가 속해 있는 부서도 추가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Q2 서식 1-(3) '관리·운영조직의 책임자 현황' 및 1-(4)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에 따르면, 소속기관 또는 부서가 기본적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수정 또는 삭제 해도 되는가?

A2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부서는 회사마다 운영방식이 각각 다를 것이므로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적절히 수정하여 회사의 현황을 사실대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Q3 서식 1-(4)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의 "내부회계담당 인력"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

A3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뿐 아니라 회계처리부서, 전산운영부서 등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인원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업에서 단순히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Q4 서식 1-(5)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에는 "내부회계관리자"와 "회계담당임원"이 분리되어있는데, 동일한 인원일 경우 행을 삭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한 내용을 중복으로 기재해야 하는가?

A4 내부회계관리자와 회계담당임원이 동일인이라면, 한 행에 내부회계관리자와 회계담당임원 2가지 직책을 동시에 기재할 수도 있고, 동일한 내용을 각 행에 중복으로 기재할 수도 있음

관련 근거

- 외감규정 시행세칙 제3조(신고서식 등) 제3항
-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지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예산수립, 인감관리 등의 핵심통제 선정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19.9.24)

Q. 예산수립, 인감관리, 거래처의 신용평가 등과 같은 활동은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활동을 설계하고 핵심통제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이견이 있음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12]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보고정보의 신뢰성 확보목적 중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한, 운영목적이나 법규준수목적 등 다른 목적과 관련된 내부통제제도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경우 해당 내부통제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에 포함된다.

A.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C) 문단 89에서는 핵심통제를 '특정 계정과목에 대해 경영자 주장별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응하는 통제활동 중 없어서는 안 될 통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을 줄이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활동이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의한 계정과목, 거래유형과 공시사

항의 왜곡표시 감소를 위한 통제활동 등을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핵심통제의 결정 여부는 회사가 전반적으로 통제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방식 또는 해당 통제가 다른 통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예산수립과 관련된 통제는 그 자체로는 재무보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고 볼 수도 있음. 그러나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진 검토통제 (Management Review Control; MRC)에 예산 대비 실적을 분석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면 동 예산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핵심통제가 될 수도 있음

또한 인감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외부채의 발생 가능성이나,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의 보호나 부정방지 프로그램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핵심통제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마지막으로, 거래처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평가 결과가 매출 인식(대금 회수 가능성), 회사 자산의 보호(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또는 채권의 회수가능성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면 역시 핵심통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관련 근거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적용기법(C) 문단 89

[Back to top](#)

IV. New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국내 동향

- **"증권기업 10곳 중 9곳,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비 못 마쳐" [뉴시스]**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비해야 하는 자산 5천억 이상 상장사에 대한 설문 결과, 구축을 마치지 못한 곳이 90%에 달한다는 결과...“전사적 관심, 노력 필요”
- **감사위원회포럼, 설립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뉴시스]**
 - (사)감사위원회포럼, 12월 3일 설립 1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 “감사위원의 실무적 통찰력을 높일 의미 있는 시간 될 것”
- **감사인연합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포럼 개최 [세정신문]**
 - (사)한국감사인연합회, 12월 4일 제9회 감사인포럼 및 제5회 창립기념식 개최 예정
 - 이재은 흥익대 교수(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연, 패널토론 등 구성
- **회계개혁 기업에 부담...“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면제” 목소리도 [일간 NTN]**
 - 10월 30일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제3차 회의 개최 ... 금융당국에 기업 목소리 전달
 - “주기적 지정제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 등 의견 전달 ... 금융당국, “정책 운영에 의견 반영하고 향후 커뮤니케이션 지속할 것”
- **내부회계 감사 `열공`하는 CFO 들[매일경제]**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9년도 결산감사 대비 주요 이슈와 기업의 대응' 주제로 CFO 포럼 개최 ... 강의 핵심은 내부회계관리제도
- **은성수 “회계개혁, 정부만으로 어려워”...기업·감사인·공인회계사 역할 강조 [시사포커스]**
 - 은성수 금융위원장, 제2회 '회계의 날' 기념식 참석 ... “회계개혁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우며 기업, 감사인 등 시장의 자발적 참여 필요” 당부
- **우리銀, 美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합격' [한국경제]**
 - 우리은행, 미국 금융당국 종합검사 통과 ...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합격점
 - 향후 미국 법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해외 전 영업점에 확대할 계획

해외 동향

- **Study: Small firms more likely to report ineffective ICFR [CW]**
 - Audit Analytics, “SOX 404 Disclosures: A Fifteen-Year Review” 보고서 발간
 - 15년동안의 美 내부통제 공시 결과 분석, 트렌드 정보 제공
 - 미국 기업, 규모 작은 회사가 내부통제 더 취약한 경향 보여

- **EU whistleblower protection law gets go-ahead [CW]**
 - EU,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보호 법안 입법 추진
- **U.K. Regulator Pushes for Improved Financial Reports [WSJ]**
 - FRC(영국 금융당국), 기업 재무보고에 여전히 실수, 오류 많음을 지적
 - 감사위원회, CFO 등에 재무보고의 품질 높일 것 주문

[Back to top](#)

V. Event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세미나, 포럼, 교육 프로그램 등 행사 소개

(사)감사위원회포럼 설립 1주년 세미나

- **일 시:** 2019년 12월 3일(화) 17:00~20:00
- **장 소:** 포시즌스호텔 서울 그랜드볼룸(3층)
- **추 최:**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
- **내 용** (변동 가능)

Time	Contents	Speaker
16:30 ~ 17:00	참가자 등록	
17:00 ~ 17:10	축사 1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17:10 ~ 17:20	축사 2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
17:20 ~ 17:30	Break Time	
17:30 ~ 18:00	주제 1. 감사(위원)가 알아야 할 재무제표에 숨겨진 비밀: 현금흐름표	서울대학교 최종학 교수
17:00 ~ 18:40	주제 2. 회계개혁과 감사(위원)에 대한 기대	발제 금융위원회 김선문 기업회계팀장 토론 · 이화여자대학교 한중수 교수 · 삼일회계법인 오기원 파트너
18:40 ~	만찬	

제9회 감사인포럼 및 제5회 창립기념식

- **일 시:** 2019년 12월 4일(수) 14:00~18:00
- **장 소:** 공인회계사회관 대강당(5층)
- **추 최:**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
- **안 내:** [한국감사인연합회 홈페이지\(링크 클릭\)](#)
- **내 용** (변동 가능)

Time	Contents	Speaker
13:30	등록	
14:00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사회자)	
I. 제 9 회 감사인포럼		
14:00 ~ 14:30	개회식 - 개회사: 한국감사인연합회장 김광윤(아주대 명예교수) - 축사: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최준우 상임위원 - 격려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 - 사진촬영	
14:30 ~ 15:00	발제: 신외감법시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평가와 감사	이재은(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 장, 홍익대 교수)
15:00 ~ 15:10	휴식	

15:10 ~ 17:10	신외부감사법 Talk Concert 좌 장: 김광윤(아주대 명예교수, 한국감사인연합회장) 토론자: 이재권(본회 부대표, 경영학박사) 손성규(연세대 교수, 현대건설기계 감사위원장) 오기원(삼일회계법인 대표, 품질관리실장) 김종선(코스닥협회 정책본부장, 전무) 정윤섭(증견회계법인협의회, 삼덕회계법인 상무) 남기권(중소회계법인협의회, 직전회장) 이경중(공인회계사감사반연합회 부회장) 유병연(한국경제신문 마켓인사이드부장) 김선문(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17:10 ~ 17:3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7:30 ~ 18:00	II. 제 5 회 창립기념식 1. 감사연 활동보고 2. 공로상 시상

[Back to top](#)

Key Contacts



한은섭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허세봉 부대표

K-SOX TFT Leader

김민규 전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김유경 전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이주한 전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전용기 전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한상현 전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도정욱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박상욱 상무	건설업, 공기업, 교육 및 의료 산업 부문 담당
신광근 상무	전산감사, 정보 리스크 관리 담당
이성노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전원표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전현호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정 현 상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황구철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Back to top](#)

[Privacy](#) | [Legal](#)

kpmg.com/socialmedia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kpmg.com/app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19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